

피해지역을 격려하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각지를 격려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분들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전일본불교청년회 구조위원장
요네자와 치슈씨 (조동종 승려)

4월은 미나미소마에서, 5월부터는 이와키에서 미력하지만 활동 중절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탁아소와 피난소등에서 교우차 (경청[傾聴]이라고 하는 상담 자원봉사)도 지방 승려와 함께 전개중. 재해를 입은 분의 마음에 다가가, 지역에 뿌리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후쿠오카방재연구회
미야자키 유스케 씨

규슈·후쿠오카에서 응원하러 왔습니다. 후쿠시마 현내를 시작으로 전국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자와 재해를 입은 분과의 연결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 규슈에서 왔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 미력하지만 지원을 오랫동안 계속하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위한 기초지식~ 피난하신 분의 「거주」에 대해

재해발생에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피난소에서의 생활을 부득이나마 하고 계시지만 서서히 가설 주택 건설도 진행되어 입주하시는 분도 늘어났습니다. 원래 이번 재해로 주택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주택대책이 있습니다.

가설주택

(정식으로는 응급가설주택)

재해구조법에 의해 현(県)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후쿠시마현에는 24,000호 건설 예정.

임대주택

응 급 가 설 주 택 을 대신하여 현이 민간 임대 주 택 을 임대하여 재해를 입은 분에게 공급하는 주택. 후쿠시마 현에는 10,000호 예정.

공영주택

현(県)에 있는 공영주택 중에서 빈집을 제공. 1000호 제공 예정.

이 중, 가설주택은 현내 22 시읍내가 요청하여 건설장소는 82개소에 이릅니다(5월19일 현재 지도참고). 지금까지의 재해와는 달리 이번에는 규모가 너무 큰 데다가, 또한 후쿠시마현의 경우는 원자력발전사고에 의해 전주민이 피난할 수 밖에 없었던 마을도 있어서 이주했던 시읍내가 아닌 다른 여러 시읍내로 분산하여 가설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나미에마치(浪江町)와 도미오카마치(富岡町)는 3 시읍내). 따라, 주위 지리 및 생활정보를 몰라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8월에 걸쳐 피난하신 분의 가설주택 입주가 진행되지만, 그 지역마다 혹은 입주하신 분마다 겪을 수 있는 여러 고충을 받아들이어 함께 생각해가는 조직만들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난하신 분들께리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후쿠시마현재해볼ランティア센터 통신 『하트풀·후쿠시마(별책)』은 6개국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다언어센터 FACIL(고베시 나가타구)의 협력으로 일본어 외 5개국어로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FACIL대표 요시토미 시즈요씨께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인사말과 「원자력발전 문제는 일본 전체가 생각해야만 한다고 새삼 반성했습니다. 일본어를 모르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기를, 뒤쳐지는 점이 없기를」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Japanese (にほんご 일본어)
*English (英語 영어)
*Portugues (ポルトガル語 포르투갈어)
*Chinese (中国語 중국어)
*Korean (かんこく・ちょうせん 한국어·조선어)
*Tagalog (フィリピンのタガログ語 필리핀 타갈로그어)

대피소에 계신 분들께

안도의 한숨을 쉴 무렵에 조심하고 싶은 점



후쿠시마 현 소소 보건복지사무소 건강복지부 보건복지과
장애자지원팀주임보건교사 산페이 히로코 씨

재해발생이 있는 지 3개월이 경과하여, 가설주택으로 이동하시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피난소에는 주위에 늘 사람이 있어서 신경 쓸 일도 많고, 불면에 시달리는 분도 많으셨지요. 가설 주택으로 옮기고 임시거처라도 우리 집이 생겼다는 것에 일단락 안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입주해서 안심하는 반면, 주위 사람과 벽을 사이에 두는 것으로 쓸쓸함을 느끼거나 벽을 마주하는 것으로서 갑자기 상실감이 생기는 분도 계시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이뤄온 생활을 잃어버린 충격과 신체적으로 쌓인 피로로 인하여 심신의 건강을 해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 1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일찍 자기·일찍 일어나기·아침식사」는 중요합니다!
- 2 집에 틀어박히는 일을 피합니다.
·일과 및 취미활동을 가능한 한 계속합니다.
·하루에 한번은 밖에 나가도록 합니다.
·가설주택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합니다. 집합장소에도 얼굴을 내밀도록 합니다.
- 3 아직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무리하기 쉬우나, 몸은 지쳐있으니 휴양을 충분히 취하도록 합니다.
- 4 과음하지 않도록 합니다. 취침 전 술은 삼가고, 휴간일(간이 쉬는 날, 애주가가 술을 안 마시기로 한 날)을 만듭니다.
- 5 괴로운 기분은 「고친다」라기보다 「협력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괴로운 일을 참거나 공공거리지 말고 가까운 사람이나 전문가(심리 케어팀 등)에게 상담합니다.
- 6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들은 주위 분들이 말을 자주 걸거나 스킨십을 통해 안심시키도록 합니다. (가설주택으로 옮기면 가족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가설주택에 가셔도 저희들은 여러분의 생활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부담 없이 상담해주세요.

편집 후기

「인간만사 새옹지마」. 언뜻 보기에 화(禍)로 보이더라도 복이 되는 일도 있는 것이죠, 자기하기 나름으로 복을 부르는 것도 가능하죠.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한결음씩 전진.
(사이트 나옴)



赤い羽根共同募金



힘내자, 일본.
힘내자, 동북.

힘내자, 후쿠시마.

최신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pref-f-svc.org>

